

창립 65주년 기념 유공직원 해외연수

백두산, 고구려 유적지 및 항일 독립 역사 탐방

민족의 성산, 백두산을 찾아가다



최 운동

광주시지부 사무처장

많은 여행을 다녀왔지만 다른 때보다는 오늘은 조금 특별한 기분이 들고 설레기도 한다. 백두산 천지를 보고 무슨 소원이나 감정을 표현할까 생각에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낀다.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백두산 및 고구려 항일 유적지 역사 탐방에 나선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 역사

순례단 25명 모두 오늘만큼은 같은 기분이리라 추측하며 백두산에 오를 준비를 갖췄다.

그래서인지 새벽 5시 기상 가는 길이 고불고불하고 가파른 길이였지만 이상하게 피곤하거나 불편함은 없었다. 이동 중 만주벌판을 내려다보며 1000년 전 광개토대왕이 이곳을 정복할 때 얼마나 많은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꼈는지 상상하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이 땅을 다시 우리의 땅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원했다.

백두산은 한민족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이자 1920~30년대 항일투쟁의 격전지였다. 만주국을 세우려고 광분한 일본 관동군과 조선 독립군의 대혈전이 전개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 아픔이 살아 숨쉬는 곳. 선열들의 자취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니 정상에 오르는 발걸음마저 가벼웠다.

드디어 해발 2745m인 백두산에 도착하는 순간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파란 하늘 아래 백두산 천지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니.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피와 땀이 설인 신기루 같은 물 아닌가.

비록 오늘날의 천지는 55%가 북한, 45%가 중국 소유로 되어 있어 자동으로 백두산 영토도 양분되어 아쉽긴 하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은 변치 않을 것이다.

역사는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닌 기록과 기억으로 후대와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라 생각한다. 역사를 읽어버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의 역사에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만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 아닐까.

이러한 아픔의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록하고 기억해서 다시는 이러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독립운동의 혼이 담긴 여순감옥 방문



유 인 일

충북 제천시지회 사무국장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한국자유총연맹 본부(이하 자총)에서 주관, 유공직원에게 대한 자총의 이념을 구현하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체험형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4박 5일간의 행사 코스는 중국 옛 고구려 영토와 우리의 피와 얼이 뭉쳐 메아리치는 독립운동의 발판이 되었던 지역이라 자총의 사무국장으로서 출발 전부터 매우 뿌듯한 마음으로 참가했다.

답사기간 내내 여러 곳들을 둘러보고 많은 것들을 느꼈지만, 가장 내 마음 속 무언가를 움직였던 건 마지막 날 일정한 휘순(여순)감옥 방문일 것이다.

휘순감옥은 라오닝성 다롄시 휘순에 있는 일제시대의 감옥으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곳이다.

특히 이 곳이 우리에게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는 1909년 만주의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독립운동가 안

중근이 수감되었다가 옥사했던 곳이라는 점일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수감생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일제의 만행을 간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참혹함을 넘어 분하고 안타까워 견학하고 설명하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렇게 지켜온 나의 조국이 다시는 다른 국가가 알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百聞不如一見이라 했던가? 이 땅의 대학 강단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 연수를 다녀온 지역에 대해 평소 강의도 해보고 세미나, 연구 등을 해왔다.

그런데 실제 현지를 방문했을 때 가슴속으로부터 밀려오는 감정,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가슴속 그 무엇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남과 북은 하나의 공동체이고 언젠간 통일이 되어 우리 선조들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을 더욱 부강하고 발전시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체험형 연수기회가 더 많아져 자총의 회원들이 더욱더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체험형 연수기회를 주신 박종환 총재님과 사무총장님 등 본부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역사는 기록과 기억으로 후대와의 소통을 위한 공간”

“百聞不如一見, 체험형 연수 기회 확대 되었으면”



◇8월 28일 백두산 정상에 오른 해외연수단.



◇8월 30일 여순감옥을 방문해 관계자에게 당시 우국지사들이 겪은 고초를 듣고 있다.